

2015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1	⑤	2	⑤	3	①	4	③	5	②
6	②	7	③	8	⑤	9	②	10	⑤
11	⑤	12	③	13	④	14	③	15	①
16	②	17	①	18	⑤	19	⑤	20	②
21	④	22	③	23	②	24	②	25	④
26	④	27	②	28	②	29	⑤	30	③
31	③	32	⑤	33	①	34	④	35	③
36	③	37	③	38	①	39	②	40	④
41	①	42	③	43	③	44	⑤	45	③

[화법]

1. [출제의도] 토의 내용 분석하기

김○○는 대안 실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기준으로 대안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 교육과 함께 캠페인도 병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김○○는 자전거 통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학교 앞 도로 상황의 측면에서 분석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손△△는 학생들의 자전거 운전 습관을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한 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손△△는 이미 시행 중인 동영상 통한 안전 교육과 함께 안전 교육 전문가를 초빙해 실습을 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전□□는 학생회에서 자전거 점검의 날을 지정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캠페인 활동을 하자는 학생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사회자의 역할 이해하기

사회자가 토의 참가자의 발언이 주제에서 벗어남을 지적한 부분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문제의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과 관련한 토의 참가자의 발언을 요약 정리한 후, 이들 대안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사회자는 토의를 진행하기 위해 ‘김○○ 학생, 손△△ 학생, 전□□ 학생의 순서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발언을 하며 토의 참가자의 발언 순서를 지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사회자가 다음 토의에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안을 세워보자는 내용을 안내하며 토의를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사회자는 전□□의 발언을 듣고 구체적인 사례를 질문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청중의 반응 분석하기

청중 1은 손△△가 말한 학생들의 자전거 운전 습관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공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청중 2는 손△△가 말한 대안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청중 3은 전□□의 발언을 듣고 자전거 관리가 중요함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이전부터 중시했던 생각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청중 1과 청중 2는 모두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측면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청중 3은 자전거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행동 변화가 나타나지만, 청중 2에는 행동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 [출제의도] 발표 준비 이해하기

학생들의 대화 내용에서는 발표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ㄱ, ㄷ ‘학생 2’ 첫 번째 대화에서 발표의 목적 및 청중의 배경지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ㄴ ‘학생 1’의 두 번째 대화에서부터는 수집한 자료 중에서 주제에 맞게 선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발표에 사용한 말하기 전략 확인하기

㉠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것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은 발표자가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여 청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은 ‘한국은행’이라는 자료의 출처를 밝혀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은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해 발표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은 청중의 동참을 유도하여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작문]

6.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하기

협동 작문의 초고를 작성하기 위한 모둠원 학생들의 대화 내용 중 모듬원 2 학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휴대용 물통을 직접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을 제시하는 내용은 협동 작문의 초고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 협동 작문의 초고 내용 중 ‘음료 판매점 등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일회용 컵은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130억 개 이상이라고 한다.’라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 협동 작문의 초고 내용 중 ‘휴대용 물통을 계속 들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과 사용 후 세척의 어려움’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 협동 작문의 초고 내용 중 ‘소비자들은 휴대용 물통에 뜨거운 물이나 음료를 넣으면 환경호르몬 물질이 배출되어 건강을 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휴대용 물통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 협동 작문의 초고 내용 중 ‘또한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휴대용 물통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되더라도 미량이 검출되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한다.’라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7. [출제의도] 작문 과정에서 자료 활용하기

‘휴대용 물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음료 가격 할인과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함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로 삼는다.’라는 언급은, <보기>에서 휴대용 물통 사용자 할인 혜택을 제공한 2011년 이후에 휴대용 물통의 사용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보기>에는 휴대용 물통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한 내용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보기>에는 음료 판매점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보기>에는 친환경 소재의 휴대용 물통의 제작과 관련한 내용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보기>에는 휴대용 물통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음과 관련한 내용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8. [출제의도] 조건에 따른 표현의 적절성

‘휴대용 물통 사용의 활성화는 우리가 친환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언급에서 기대 효과를, ‘편리하지만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회용 컵 사용은 줄어들고 불편하지만 환경을 보호하는 휴대용 물통의 사용은 늘어날 것이다.’라는 언급에서 대조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앞의 해결 방안들을 실천한다면 일회용 컵 사용

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통해 ‘휴대용 물통 사용의 활성화’에 따른 기대 효과를 드러내고 있으나,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휴대용 물통 사용의 활성화’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게 기여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통해 ‘휴대용 물통 사용의 활성화’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은 진술하고 있으나,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휴대용 물통 사용의 활성화’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9. [출제의도] 글을 쓰기 위해 고려한 내용 파악하기

멘토링 교실 참여 자격 항목별 안내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멘토링 교실 체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제시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멘토링 교실 참여 동기로 시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멘토링 교실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이겨냈던 경험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멘토링 교실 참여 전과 후의 차이가 제시되고,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연결어미 ‘-도록’은 ‘-게 하기 위하여’의 뜻을 나타내므로 ‘않도록’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문장의 연결 관계 상 앞 내용이 뒤 내용의 원인·근거가 되므로 ‘그래서’가 적절하다. ②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 상 ‘멘토링 교실’이 주어이므로 여기에 어울리는 서술어로는 ‘진행되었다’가 적절하다. ③ 단어의 의미상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행함’의 의미이므로 ‘병행’이 적절하다. ④ 문맥을 고려할 때 해당 문단의 끝부분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문법]

11.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은 ‘ㄴ’으로 끝나는 형태소와 ‘ㅣ’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결합할 때 없던 음운 ‘ㄴ’이 추가된 것이므로 첨가에 해당한다.

① ㉠은 ‘ㅂ’의 영향을 받아 ‘ㄱ’이 ‘ㄱ’으로 바뀐 현상이므로 교체에 해당한다. ② ㉢은 ‘ㅎ’으로 끝나는 어간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ㅎ’이 없어진 현상이므로 탈락에 해당한다. ③ ㉣은 ‘ㄱ’이 ‘ㄴ’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뀐 현상이므로 교체에 해당한다. ④ ㉤은 ‘ㅎ’과 ‘ㅈ’이 합쳐져서 ‘ㅈ’이 된 현상이므로 축약에 해당한다.

12. [출제의도] 담화 요소의 기능 이해하기

㉢은 딸의 발화 이전에 아버지가 이야기한 ‘저 옷이랑 같이 입으면’의 내용을 대신하여 표현하고 있는 대용 표현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앞에서 한 말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 뒤에 추가될 것임을 나타낸다.’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이거’는 가리키는 대상이 화자와 가깝게 위치할 때 쓰이는 지시 표현이므로 ‘지시하는 대상이 청자인 은주에 비해 화자인 아버지에게 가까이 있음을 나타낸다.’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저’는 상황 맥락 속에 존재하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지시 표현으로 아버지와 딸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대화의 맥락으로 볼 때 ‘지시하는 대상을 청자인 은주도 볼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그렇게’는 앞서 아버지가 이야기한 내용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이므로 고모한테 고맙다고 전화 한 통 드리라는 말을 대신하여 담화의 중복을 피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그런데’는 고모한테 전화 한 통 드리라는

화제에서 영화를 보러 가자는 화제로 바꾸고 있으므로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는 기능을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 이해하기

‘씩씩’은 ‘ㄱ’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로, 같은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에 따라 ‘씩씩’으로 표기한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① ‘으뜸’은 두 모음 사이에 된소리가 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거꾸로’는 두 모음 사이에 된소리가 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살짝’은 ‘ㄹ’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낙찌’는 ‘ㄱ’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지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따라서 ㉡에 따라 ‘낙지’로 표기하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다.

14. [출제의도] 국어사전 활용하기

㉢의 ‘발걸음이 늦다.’는 ‘늦다[Ⅱ]㉓’의 의미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시간에’와 같은 용례를 살펴볼 때, ㉠에 들어갈 말은 【…에】가 적절하다. ②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Ⅱ]㉑ ㉒ ㉓을 볼 때 ㉢에 들어갈 말은 형용사가 적절하다. ④ ㉢에 제시된 ‘그는 다른 사람보다 서류 작성이 늦다.’는 ‘꼭조, 동작 따위의 속도가 느리다.’의 의미에 해당하는 예이므로 적절하다. ⑤ ‘이르다’는 대중이나 기준을 잡은 때보다 앞서거나 빠르다는 의미이므로 그것의 반의어는 ‘늦다[Ⅱ]㉑’이 적절하다.

15.[출제의도] 올바른 문장 표현 이해하기

‘주다’는 부사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따라서 부사어 ‘우리에게’를 추가하여 수정하였다. 그런데 수정한 이유를 보면 목적어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다.

② ‘믿겨지다’는 ‘믿다’의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이중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수정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추고’가 빠져 있었으므로 목적어의 하나인 ‘춤’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어 수정하였다는 것은 적절하다. ④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는 ‘라고’이며,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고’이므로 조사가 잘못 사용되어 수정하였다는 것은 적절하다. ⑤ ‘운정’은 ‘따뜻한 사랑이나 인정’이란 뜻이므로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사용하여 수정하였다는 것은 적절하다.

[인문]

[16~19] <출전> 윤지원, 「순자의 수양론 연구」

16.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3문단에서 ‘일은 심이 여러 가지 사물의 차이를 구별하는 가운데, 유기적 관계 속에서 모든 것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했으므로 ‘사물의 구별이 없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의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 되는 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4문단의 ‘인간이 특별한 능력을 선천적으로 갖추었다고 해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의 ‘이와 같은 이상적 상태를 대칭명이라 부르고 이에 도달한 존재를 성인이라’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3문단의 ‘인간의 심은 항상 움직이면서 상상이나 잡념에 사로잡히기 쉽다. 이렇게 되면 심은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 [출제의도] 주요 개념 비교하기

2문단에서 심은 폐에 상태가 되면 도를 제대로 보지 못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이 되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심은 수양의 과정을 통해 대칭명에 이른다고 했으므로 수양을 통해 폐에 도달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2문단에서 폐는 도를 인식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2문단에서 심은 외부 사물에 흔들리는 특성을 가진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2문단에서 폐는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8. [출제의도]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하기

3문단에서 순자의 허 개념을 심이 ‘과거의 지식을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순자가 기존 지식을 비운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에서 순자의 허일정은 모두 ‘심이 ~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보기>에서 장자의 허일정을 ‘심을 비우고, 심을 한 곳에 집중하게 하며, 고요함의 상태에서 외적 사물에 동요되지 않고 심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에서 ‘심은 허일정을 통해 편견을 극복하고 도를 인식하여’라고 진술하고 <보기>에서 ‘장자는 도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허일정을 제시’했다는 진술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심이 고요함을 간직하여 평정을 잃지 않는 상태’라고 진술하고 <보기>에서 ‘심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진술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심은 인간의 욕망을 다스려’라는 진술과 <보기>에서 ‘욕망, 지식 등과 같은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라는 진술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정진(精進)의 의미가 ‘힘써 나아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여럿 가운데서 앞서 나아감.’은 정진(挺進)의 의미이다.

[예술]

[20~23] <출전> 미켈 뒤프렌, 「미적체험의 현상학」

20.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 파악하기

1문단에서 미적 지각이 시작될 때 예술 작품이 미적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미적 지각을 강조하고 있고, 나머지 문단의 내용이 미적 지각의 변화 양상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미적 지각의 단계가 표제로 적절하다. 그리고 미적 지각 단계마다 미적 대상으로서의 예술 작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서술하고 있어 미적 대상과의 관계가 부제로 적절하다.

① 미적 대상의 특성은 부차적인 정보로 각 문단에서 간략히 언급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미적 체험의 형성 과정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미적 지각과 미적 대상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나 부제로 제시된 감상자의 감정은 마지막 문단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⑤ 미적 대상의 역동성은 글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1. [출제의도] 세부 정보 확인하기

3문단에 따르면 시공간적인 내용을 덧붙이는 것은 상상력에 의한 표상의 지각 단계이고, 4문단에 따르면 감상자가 작품 속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공감적 반성의 지각 단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미적 지각이 시작될 때 미적 대상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고, 2문단에서 미적 지각의 시작인 현전은 신체적으로 반응하면서부터임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이다. ② 4문단에서 공감적 반성에서 작품의 의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감동을 얻는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객관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상상력이 만든 표상을 검증한다고 하였고, 2문단에서 표상의 상상력은 환상으로 이어진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예술가의 제작 의도를 파악하는 비평적 반성만으로는 작품의 내면적 의미를 이해

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2. [출제의도] 자료 해석의 적절성 파악하기

ㄱ에서 명암의 차이를 인식하고 시선이 가는 것은 신체적 자세를 취하면서 작품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2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는 현전 단계의 감상이라 할 수 있다. ㄴ에서 두 남녀를 심리적으로 불편한 관계로 인식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린 것으로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다. 이는 3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는 표상 단계의 감상이라 할 수 있다. ㄷ에서 근대 유럽의 작은 도시의 카페 있는 인물의 모습을 생각한 것은 시공간적인 내용을 이미지로 떠올린 것이다. 이는 3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는 표상의 단계이다. 따라서 비평적 감상의 단계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ㄹ에서 고독감을 정서적으로 느끼고 이것이 자신의 정서와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4문단의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공감적 반성 단계의 감상이라 할 수 있다.

23.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의 ‘취하다’는 ‘어떤 특정한 자세를 취하다.’라는 의미이다. 이는 ‘포즈를 취하고’의 ‘취하다’와 유사하다. ① ‘남에게서 돈이나 물품 따위를 꾸거나 빌리다.’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④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일정한 조건에 맞는 것을 골라 가지다.’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과학]

[24~26] <출전> 강인숙, 「분자생물학 입문서」

24. [출제의도] 내용 일치 확인하기

3문단에서 단백질의 접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단백질의 구조가 입체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단백질은 변성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소포체는 유입된 단백질을 가공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비정상적 단백질이 축적되면 소포체의 기능이 저하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 소포체는 전체 개체의 유익을 위하여 세포를 죽음에 이르게 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5문단에서 소포체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소포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해 세포 조직이 손상되어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5.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 파악하기

4문단에서 샤페론이 단백질의 정상적 접힘을 유도하는 B 이후에 비정상적 단백질은 소포체 밖으로 운반되어 분해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에서 소포체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센서에서 GRP78이 분리되어 센서가 활성화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샤페론은 비정상적으로 접혀 있는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접히도록 유도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4문단에서 PERK는 단백질의 합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IRE1, ATF6은 단백질의 접힘을 도와주는 단백질인 샤페론의 양을 늘린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소포체 내에 있는 비정상적 단백질은 소포체 밖으로 운반되어 분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6. [출제의도] 다른 예를 통해 추론하기

4문단에서 소포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발생하는 것이 ‘세포자멸사’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특정 약물은 암세포의 소포체 스트레스를 강화하는 약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2문단에서 소포체 스트레스는 단백질의 변성에 의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퇴행성 신경 질환을 치료하려면 소포체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유입된다는 것은 추론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특정 약물이 세포자멸사를 유도한다고 했으므로 암세포의 소포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약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특정 약물이 세포자멸사를 유도한다고 했으므로 암세포의 단백질 구조 변화가 정상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약물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회]

[27~30] <출전> 홍준형, 「행정구제법」

27.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행정구제제도의 유형을 행정상 손해전보와 행정쟁송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4문단에서 행정쟁송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례를 들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행정상 손해배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행정구제제도의 변천과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8. [출제의도] 사실적 내용 파악하기

행정심판의 법적 근거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5문단에서 행정소송의 성립 요건으로 자격 있는 당사자의 소송 제기과 소송으로 보호 받을 당사자의 실질적인 이익, 급박한 사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행정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으로 현금보상과 물건으로 하는 보상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행정상 손실보상의 도입 취지로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실을 사회 전체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공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구제하는 것은 행정상 손실보상이다. 따라서 [A]에서 언급한 대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 한해 행정기관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에서 영조물의 관리상의 하자과 같은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맨홀 뚜껑의 관리 하자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이로 인한 손실을 구제하는 것은 행정상 손실보상이다. 따라서 [A]에서 언급한 대로 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주민들을 위한 도로 공사는 공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이므로 이로 인한 손실을 구제하는 것은 행정상 손실보상이다. 따라서 [A]에서 언급한 대로 당사자 간의 협의로 보상액을 결정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A]에서 행정기관의 결정 절차를 거치고도 보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0. [출제의도] 핵심 내용 적용하기

5문단에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도 있으며, 행정심판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제기가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갑’이 행정기관에 심판을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으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갑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효력의 유무나 부당성을 심판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5문단에서는 행정쟁송 중 행정심판의 경우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② 5문단에서는 행정소송은 사건과 관련하여 자격 있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보호 받을 실질적인 이익이 있으며, 급박한 사안일 때에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갑’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된다면 갑의 상황이 지닌 급박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5문단에서는 행정심판의 경우 법원의 심판에 따르는 행정소송에 비해 개인의 소송 비용과 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갑’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비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⑤ 5문단에서는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나 해당 행정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갑’이 행정심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도 된다고 할 수 있다.

[현대소설]

[31~34] <출전> 윤홍길, 「직선과 곡선」

31.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기사를 읽은 ‘나’와 ‘오 선생’의 대화를 통해 왜곡된 기사 내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두 인물의 시각적 차이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제시된 지문에서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인물의 대화 장면이 주를 이루며, 장면의 빈번한 전환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제시된 지문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로 주인공인 ‘나’가 서술자가 되어 ‘나’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제삼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제시된 지문에서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제시된 지문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시점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3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오 선생’에게 신체 지며 실직자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서 ‘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고 ‘오 선생’에게 신체 지는 모습이 ‘나’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라 볼 수 없다.

① ‘나’를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꾸어 놓은 것은 동림산업 측이 일방적으로 사건을 조작해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가진자의 횡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오 사장’이 거짓으로 자신의 선행을 알리고 있으면서 이를 부끄러워하는 척 하는 것은 인물의 위선적 행동에 해당한다. ③ 산속으로 끝까지 가 봐도 길이 없었다는 ‘나’의 말은 ‘나’의 선택이 어쩔 수 없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로, ‘나’가 현실타협적인 태도를 선택하는 배경이 된다. ④ ‘서로가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이를 활용하며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표현은 부조리한 사회 모습을 나타내준다.

33.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추리하기

‘나’가 양산도집의 ‘신 양’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로 변화한 자신의 삶의 태도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의 삶의 변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가 구두를 태우는 것은 자존심을 버리고 살겠다는 결심을 보여주는 의식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③ ‘나’가 뒤늦게라도 넉넉하게 살겠다고 하는 말에

서 ‘나’가 택한 삶의 방식이 드러난다. ④ 보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나’의 말에서 구두를 태운 이후에 ‘나’가 현실과 타협해 살아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구두를 태우기 이전이라면 고소를 했을 거라는 ‘나’의 말을 통해 구두를 태우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태도가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34. [출제의도] 인물의 행동 추리하기

㉡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사의 왜곡을 묵인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현실과 타협하려는 인물의 심리를 보여준다.

① ‘하얗게 질린 표정, 혈레벌떡’과 같은 부분에서 인물이 매우 놀라고 당혹스러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이따위 놈들’이라는 말의 사용이나 느낌표의 사용 등으로 인물의 분노를 느낄 수 있다. ③ ‘의식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 진즉부터 예감하고 마음으로 대비해 온 수많은 경우 중의 하나’라는 뒷문장의 서술로 보아, 인물이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가 오 선생의 반응을 전혀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는 부분에서 상대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인물의 심리를 알 수 있다.

[고전소설]

[35~38] <출전> 서유영, 「육미당기(六美堂記)」

35. [출제의도] 대립 구도 파악하기

찬보가 먼저 원수를 공격하였으므로 원수가 선제 공격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천자가 군사를 일으켜 오랑캐를 소탕할 것이라는 군사적 위협을 통해 찬보의 태도 변화를 꾀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찬보는 과거에 군사를 발하여 서로 구원하였던 사실을 환기하며 찬보의 거만함에 대한 부마의 질타를 공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찬보가 원수의 나이 어림에 방심하여 원수의 계책에 넘어가므로 찬보의 오만함으로 위기에 처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대립 구도 1은 찬보가 천조 대신인 부마를 영접하지 않아서 생겼으므로 이 진술은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소재의 서사적 기능 파악하기

원수는 부마가 내육에 갇히게 될 것을 예지하여 비단 주머니에 네 구의 말과 환약을 넣어 주므로 ‘비단 주머니’가 원수의 능력을 알려 주는 단서가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공간 이동에 따른 내용 파악하기

‘내육’에서 부마는 원수가 준 비단 주머니에 있는 환약을 먹고 위기에서 벗어나므로, ‘내육’이 조력자의 도움 없이 위기를 벗어나는 공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양주성은 부마가 황명을 받들어 사신으로 가면서 거치는 공간이므로 적절하다. ② 토번의 진은 아이영의 만류로 부마의 처형을 유보하는 공간이므로 적절하다. ④ 양주성 밖은 원수가 표를 통해 태수 적성의 충절을 기리기를 청하는 공간이므로 적절하다. ⑤ 번병의 진은 원수가 세운 계책이 성공하는 공간이므로 적절하다.

38.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 추리하기

번병이 당군에게 전후좌우 공격받고, 포위당한 상태이므로 ‘사면초가(四面楚歌)’가 적절하다. 사면초가(四面楚歌)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이다.

② 고진감래(苦盡甘來)는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말이다. ③ 호가호위(狐假虎威)는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린다는 말이다. ④ 금의환향(錦衣還鄉)은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출세하여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이다. ⑤ 연목구어(緣木求魚)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듯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함을 이르는 말이다.

[시가복합]

[39~42] <출전> 이신의, 「사우가(四友歌)」
이양하, 「나무」

39. [출제의도] 작품 간 공통점 파악하기

(가)의 2수에 국화를 ‘내 벗’이라고 의인화한 부분과 4수에 대숲이 청풍을 반긴다며 의인화한 부분, 그리고 (나)에서 나무를 ‘흙과 태양의 아들’이라고 의인화한 부분, 달을 ‘의리 있고 다정한 친구’ 등으로 의인화된 부분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두 작품 모두 자연물을 통하여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① (가), (나) 각각 ‘사우’와 ‘나무’를 예찬하는 어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③ (가), (나) 모두에서 점층적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④ (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⑤ (가)의 3수에서 ‘아니 귀(貴)고 어이리’에서 설의적인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나)에서는 그러한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4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보기>에는 유배 중인 작가에게 시련을 가져다 준 정치 현실에 변화의 조짐이 드러난다는 단서는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수의 술에게 풍상, 즉 바람과 서리는 시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므로 정치적 시련을 겪는 작가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② 봄 빛을 가진 소나무는 불변성을 의미하므로 뜻을 바꾸는 숙된 선비와는 다른 작가의 삶의 자세로 볼 수 있다. ③ 안온한 삶을 의미하는 춘광을 마다하고 국화를 벗으로 삼는 것은 작가의 고고한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⑤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을 청풍이라 여기고 반기는 것은 유배지의 힘겨움을 이겨내는 씩씩한 기상이라 볼 수 있다.

41.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 비교하기

㉠은 겨울이 되면 사라지는 가변성을 지닌 존재이고 ㉡은 가변적인 꽃과 풀과 대비되는, 불변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적절하다.

② ㉠은 겨울이 되면 간 곳 없으므로 강한 생명력과 는 무관하고 ㉡은 변하지 않는 성질을 지닌 사물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은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은 가변적이므로 부정적인 속성을 지녔고, ㉡은 긍정적인 속성을 지녔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은 화자를 성찰하게 하는 존재일 수 없고 ㉡은 과거 회상과 무관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42. [출제의도] 글쓴이의 생각 파악하기

고독을 경험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삶의 깨닫는 내용은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천명을 다한 뒤에 하늘 뜻대로 다시 흙과 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달을 유달리 후대하고 새와 바람을 박대하는 일도 없’고 ‘달은 달대로, 새는 새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다 같이 친구로 대’한다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사람은 가다 장난 삼아 칼로 제 이름을 새겨 보고, 흔히 자기 소용달는 대로 가지를 쳐 가고 송두리째 베어’ 가는 등 나무에 상처를 줌에도 나무는 ‘원망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시]

[43~45] <출전> (가) 이용악, 「폴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나)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43.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폴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깃어덴다’라는 특정한 어구의 반복을 통해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① (나)는 ‘언뜻언뜻’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가)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② (나)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④ (가)에는 말을 건네는 방식의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영탄적 어조는 (가), (나)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

44. [출제의도]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나)에 선제리 아낙네들에 대한 관찰은 드러나 있다. 그러나 화자가 처한 공간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화자 자신이 처한 공간과 대상이 처한 공간을 대비하여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1연을 보면 타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간적 배경은 침상 없이 임종을 맞이하는 고달픈 삶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② (가)는 아버지의 임종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가)는 폴벌레 소리라는 청각적 심상과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애상적인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④ (나)는 선제리 아낙네들의 귀갓길을 한밤중으로 설정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45.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이해하기

‘마를 한 접’은 선제리 아낙네들의 가난한 생활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삶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소망을 형상화한 표현이다. ② ‘있는 대로의 울음’은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 본 가족들의 슬픔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군산 목은 장터에서 ‘시오릿길’을 걸어 왔으나 ‘십릿길’을 더 가야하므로 이는 선제리 아낙네들의 힘겨운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하였으므로 공동체적 연대감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